

6주 2020년 하계방학 목상지

7월 27일 월요일	<말씀목상>	삼하 19-21
<p>• 내용요약: 에브라임 수풀전투에서 자신을 쫓던 압살롬 군대를 섬멸함으로 반역의 무리를 무찔렀던(18장) 다윗은 이제 눈물겨운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떠나온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된다. 19장에는 아들 압살롬을 읽고 슬픔에 젖어 있던 다윗에게 요압이 용기를 북돋우는 장면, 다윗과 일행이 예루살렘 귀환 길에 오른 장면, 도피 과정에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하는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다. 20장은 베냐민 지파 불량배인 세바의 주도로 일어난 반란과 다윗의 특사 아마사가 요압의 칼에 쓰러진 일, 반란자 세바가 아벨 성에서 참혹하게 죽은 일, 반란이 평정된 후 이스라엘의 정치체제가 새롭게 정비된 일등을 기록한다. 이 같은 거듭된 반란과 피의 복수는 다윗의 범죄 후 하나님이나 단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바(12:10)이다. 2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 소수민족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울의 범죄로 인해 다윗시대에 임한 '3년 대기근 사건' 을 기록하고 있다.</p> <p>• 질문: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는?(19장)</p> <p>• 생각하기: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개인, 죄악을 청산하지 않는 나라와 교제하지 않으신다.</p>		

7월 30일 목요일	<말씀목상>	대상 7-9
<p>• 내용요약: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했던 레위지파에 관해 소개했던 6장에 이어 7장에는 잇사갈(1-5절), 베냐민(6-12절), 납달리(13절), 므낫세 반 지파(14-19절), 에브라임(20-29절), 아셀(30-40절) 지파들의 족보와 그들 지파에서 참전(參戰)가능한 병사들의 숫자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옛 조상들이 가난한 정복전쟁에 임하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복구하는 일에 매진 할 것을 던지시 역설해주고 있다. 8장은 7:6-12절에 언급되었던 베냐민 지파족보 보 보완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9장에는 포로 이후 귀환한 12 지파의 대표적 인물들 명단, 바사왕국의 고레스(B. C. 539-529) 칙령 직후 가장 먼저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 성전문지기와 성전 기록관리자, 찬양대원 및 초대왕 사울을 전후한 족보 등이 소개된다.</p> <p>• 질문: 고레스 칙령 직후 가장 먼저 돌아온 자는?(9장)</p> <p>• 생각하기: 하나님의 일에는 무질서나 무계획이 용납되지 않는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수선하고 어지럽지 않은가?</p>		

8월 2일 일요일	<말씀목상>	대상 17-19
<p>• 내용요약: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15장) 또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여 제사와 찬송을 드렸던(16장) 다윗은 17장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약궤가 안치될 거룩한 처소 곧 성전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성전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의 집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p>		

7월 28일 화요일	<말씀목상>	대상 1-3
<p>• 내용요약: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청산한 직후(B. C. 450년경)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선민(選民)으로서의 자의식을 되찾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1장-9장까지는 그일의 일환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최초 인류 아담에서 본서 기록 당시의 인물들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2장은 인류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최초 인류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를 소개한 1장에 이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으로부터 영적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직분을 감당할 유다가계의 혈통이 다윗 때까지 소개되고 이어 유다자손의 가운데다윗과 방계를 이루는 갈렙과 여라므엘(25-41절)의 후손족보를 소개한다. 3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정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의 아들과 처첩의 명단, 이스라엘을 최고 번성기에 올려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의 명단과 스룹바벨 이후 후손들의 명단을 소개한다.</p> <p>• 질문: 역대상이 기록된 상황을 설명하라?</p> <p>• 생각하기: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개개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소개한 축소판 역사서이다.</p>		

7월 31일 금요일	<말씀목상>	대상 10-13
<p>• 내용요약: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 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집안을 소개한 9장35-44절에 이어지는 10장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사울의 최후 장면을 적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등극에 대한 다윗 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을 보이기 위함이다. 11장은 사울을 이어 왕으로 즉위한 다윗(1-9절)과 다윗의 왕국을 튼튼한 기반 위에 세운 다윗의 용사들(10-47절)에 관한 기록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사울 왕조의 비극을 극복하고 다윗 왕국과 더불어 안정과 번영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부터 본서 저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다윗 왕국이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12장은 다윗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기까지 마음과 몸으로 충성한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p> <p>• 질문: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는?(11장)</p> <p>• 생각하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의 담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p>		

<p>축복에 감사기도 하는 장면이 나온다(16-27절). 18장은 삼하8장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윗이 주변 이방 나라를 복속하여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구축하는 장면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신정왕국으로 대표되는 다윗 왕국의 왕성함을 통해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 적으로 보여준다. 19장은 삼하10장의</p>		
---	--	--

이름: _____ 학번: _____

7월 29일 수요일	<말씀목상>	대상 4-6
<p>• 내용요약: 유다지파의 족보를 소개했던 3장에 이어 4장에는 유다지파의 족보 중 보충적인 내용(1-23절)과 유다 지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던 시므온 지파의 족보명단(24-33절) 및 그 지파의 족장명단(34-43절)이 소개된다. 이처럼 가장 번창했던 유다지파의 족보에 이어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족보가 소개된 것은 시므온지파가 유다지파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수19:1-9). 특수한 관계성 때문이다. 5장은 요단동편 땅에 거한 르우벤(1-10절), 갓(11-17절), 므낫세 반 지파(23-24절)의 후손 족보와 그 땅 사수를 위해 힘썼던 용사들(18-22절)과 그 땅의 멸망에 관한보고(25-26절)를 소개한다. 한편 요단 동편 땅 지파들의 멸망은 지형적으로 소외되어 유다왕국의 후원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들의 소악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6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도하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사명을 맡은 레위지파에 관해 소개한다. 긴 지면을 할애하여 레위인들 사역(제사장, 성가대, 일반 성전 봉사자 등)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성전예배에 대한 본서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p> <p>• 질문: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도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책임 있는 자는?(6장)</p> <p>• 생각하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월등하고 눈에 띄는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성실히 준행했느냐가 중요하다.</p>		

8월 1일 토요일	<말씀목상>	대상 14-16
<p>• 내용요약: 신정왕국의 심장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계획이 불의의 사고로 중단된 사실을 소개했던 13장에 이어 14장에는 다윗이 국내외적으로 빛나는 성공을 거두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 사실을 소개한다. 돌발적인 사고로 언약궤를 만진 옷사가 즉사함으로써 일단 중단되었던 언약궤 운반작업(13장)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장면이다. 15장에는 다윗이 앞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별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게 하여 신중히 운반 작업을 재개한 사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사실 및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긴 사실(29절)이 소개되고 있다. 16장에는 언약궤 안치를 감사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의 감사제사와 감사 찬송이 소개되고 있다.</p> <p>• 질문: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운반한 자들은?(15장)</p> <p>• 생각하기: 개인이나 나라의 번영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는 개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p>		

<p>이방세력의 도전과 시비가 만만치 않게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암몬족속들이 아람의 지원 아래 다윗의 조문사절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려하다 크게 진멸당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다.</p> <p>• 질문: 언약궤를 옮긴 후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은?(15장)</p> <p>• 생각하기: 다윗의 하나님 편에서 싸우며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p>		
--	--	--

내용과 병행되는데 점점 흥황해가는 다윗왕국에 대한